

광주, '여권 만들기 좋은 도시' 전국 2위

전국 242개 대행기관 성과 평가…외교부 장관 표창 발급 실적·개인정보 보호·보조금 집행 등 높은 점수

광주시의 여권 발급 서비스가 전국 최상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최근 외교부의 '2025년도 여권사무 대행기관 성과 평가'에서 최상위권 점수인 99.95점을 획득, 전국 242개 여권 사무 대행기관 중 2위(외교부장관 표창)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2개 대행기관(광역 14개, 기초 228개)을 대상으로 업무정확도, 개인정보 보호, 보조금 집행, 여권 업무 참여도 등 5개 항목을 평가했다.

광주시는 여권 개인정보 관리실태, 국고보조금의 적정 집행 여부, 직원 수 대비 여권 발급량, 여권실무 연수교육 참여도가 높아 4개 항목에서 모두 만점을 받았다. 다만 오류 재발급이 1건 있어 업무정확도 항목에서 0.05점 감점받았다.

이번 평가점수는 96.79점이었던 전년도에 비해 3.16점 상승 했다. 광주시는 직원들의 철저한 대민봉사 자세를 바탕으로 시

민 만족도 항상에 주력, 최근 3년간 연평균 4만4000여건의 높은 여권 발급 실적을 달성했다.

민원봉사실에는 자원봉사센터 소속 봉사자들이 파견돼 여권 발급 절차 등을 안내하고, 광주시 누리집에 여권민원 대기현황을 안내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주시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해외 선진 여권기관 방문단'의 우선 선정 대상이 됐다.

김동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성과 평가는 광주시의 여권발급 서비스 경쟁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며 "앞으로도 더욱 친절하고 성실한 자세로 정확한 업무처리와 최상의 민원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시는 최근 외교부의 '2025년도 여권사무 대행기관 성과평가'에서 최상위권 점수인 99.95점을 획득, 전국 242개 여권사무 대행기관 중 2위(외교부장관 표창)를 차지했다.

윤병태 나주시장, 주민 신뢰 우선…맞춤형 정책 추진 '온 힘'

왕곡면 주민과의 대화 지역 발전 구체적 방안 논의

윤병태 나주시장은 20일 왕곡면 복지회관에서 '2026년 왕곡면 주민과의 대화'를 열고 주민과의 소통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왕곡면민 200여명이 참석해 지역 발전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주요 시정 성과를 설명하고, 2026년 나주시 시정 운영 방향과 핵심 정책을 소개했다.

이어 주민들의 견의사항과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윤병태 시장은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이 나주 발전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



윤병태 나주시장은 20일 왕곡면 복지회관에서 '2026년 왕곡면 주민과의 대화'를 열고 주민과의 소통에 나섰다.

이라며 "현장의 요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왕곡면이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주민과의 대화는 행정과 주민 간의 신뢰를 높이고,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의 기반을 다지는 자리로 평가받고 있다.

나주조합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제45대 광주전남기자협회가 20일 광주시 남구 구동 광주문화재단 소공연장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제45대 광주전남기자협회 출범

"민주주의 지켜온 지역기자 자부심 높일 것"

제45대 광주전남기자협회(회장 박진표)가 20일 광주시 남구 구동 광주문화재단 단 소공연장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출범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강 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출범식은 의빈 소개와 축사, 협회장 인사말, 새로운 집행부 임명장 수여, 협회 고문변호사 위촉장 전달, 공로패 수여, 기념 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기자협회가 새로 도입한 고문변호

사에는 임진석, 유재규, 김정우 변호사가 위촉됐다.

기자협회는 지난 2년간 협회를 이끈 공로로 류성호 44대 회장에게 공로패를 전했다.

박진표 광주전남기자협회장은 "550여 회원과 힘을 모아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몸으로 증명해 온 지역 기자들의 자부심을 지키겠다"며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책임 있는 언론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gwangnam.co.kr



20일 광주 기아 오토랜드 공장에서 열린 국가중요시설 방호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방호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기반인 국가중요시설 방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통합방위태

세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육군 31사단, 국가중요시설 방호위원회 개최

육군 제31보병사단은 20일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에서 올해 첫 국가중요시설 방호위원회를 개최했다.

김도열 사단장 주관으로 열린 방호위위원회는 국가중요시설 방호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드론·대테러 위협에 대비한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에는 지자체·경찰·소방방호담당자와 국가중요시설장 등 관계자 60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우수시설 및 유공자 표창△ 2025년 후반기 방호 진단결과 공유 △드론 테러양상 교육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위원회는 지난해 전반기 진단결과를 토

대로 방호계획보완, 실제훈련, 무기·탄약 확보 분야 등에서 내실 있는 후속조치 등을 확인했다.

이어 최근 드론 테러양상을 살펴보고 이에 대비한 국가중요시설 대드론 방호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위원회에서 도출한 결과를 올해 추진계획과 통합방호 FTX훈련에 적극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육군 31사단은 '여수·광양 대드론 방호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김도열 사단장은 "광주와 전남이 대한민국 미래 핵심거점으로, 도약하는 역사적 변혁기를 앞두고 있다"면서 "이를 안정적으로 맞받침할 수 있도록 지역의 핵심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 지자체·경찰 등 60명 참석

광주 남부경찰, 청소년 범죄·비행 예방 특강

23일까지…학교전담경찰관 PC방 등 방문

광주남부경찰은 광주 시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겨울방학 기간 청소년 범죄 및 일탈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 중심 예방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20일 밝혔다.

이는 학교전담경찰관

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청소년 이용빈도가 높은 PC방을 직접 방문해 운영된다.

특강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현장에서 청소년들과 소통하며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교育 내용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이버도박, 딥페이크 범죄, 마약 등 신종·고위험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방학 중 발생할 수 있는 일탈 및 비행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구성됐다.

특강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평소 잘 알지 못했던 범죄 유형을 구체적으로 알게 됐고,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왜 위험인지 이해할 수 있어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종득 광주남부경찰서장은 "이번 예방 교육이 청소년들의 성숙한 준법의식과 을바른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공감형 범죄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gwangnam.co.kr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의료법인 가평의료재단이 희망2026나눔캠페인에 동참하며 성금 3741만6000원을 기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광주사랑의 열매나눔문화관 2층에서 진행된 성금 전달식에는 구체길 광주사랑의 열매 회장을 비롯한 모금회 관계자들과 김수영 가평의료재단 이사장, 장창수 이사 등 재단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가평의료재단 1400만원. 김수영 이사장 개인 기부 2000만원, 가평의료재단 임직원 일동 341만 6000원으로 조성됐다. 성금은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에 사용된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업 제12호로, 그간 지속적인 고액 기부와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 왔다.

또 김수영 이사장은 아너 소사이어티 광주 184호 회원으로 꾸준한 사회적 책임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김수영 가평의료재단 이사장은 "지역 사회로부터 받은 신뢰와 사랑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의료기관의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포스코광양제철소는 최근 광양읍 소재 YWCA 무료급식소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특별 배식 봉사를 펼쳤다.

포스코광양제철소, 소외계층 온정 전달

특별배식 봉사활동·쌀 500kg 후원

포스코광양제철소는 최근 광양읍 소재 YWCA 무료급식소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특별 배식 봉사를 펼쳤다.

봉사활동이 한파 속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계신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로 전해졌으면 한다"며 "이웃들을 위해 항상 묵묵히 일하고 있는 봉사단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제철소는 새해를 맞아 지역아동센터 등·하고 도움 및 도시락 배달, 지역 아동센터에 직접 제작한 목공예품 전달, 장애인복지관 놀이수업 활동, 새해맞이 지역 마을회관 뛰국 나눔활동 등 다양한 나눔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니라 자체적으로 준비한 쌀 500kg을

광양=김귀진 기자 lkjin@gwangnam.co.kr